



비정규직 아가씨·이주 노동자가 전하는 웃음과 감동의 노래

1·2일 광주문예회관 공연 창작 뮤지컬 '빨래'

사람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동이 있다. 창작 뮤지컬 '빨래'는 지난 2005년 초연 후 3000여회 넘게 공연하며 57만명의 관객과 만났다. 초연 당시부터 한국뮤지컬 대상·극본상을 수상하고 최우수작품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등 평단의 반응도 이끌어냈다. 또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대본이 실렸다. '빨래'는 화려한 무대장치도, 자극적인 스토리도 없지만 '진심'만으로 관객을 웃기고 울리는 따뜻한 뮤지컬이다. 오는 10월 1일(오후 3시·7시), 2일(오후 2시·6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빨래'를 소개한다.

슈퍼 아저씨·마을버스 기사...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 출연배우 역할 변신 재미... 아름다운 가사 깊은 울림

■ 다양한 캐릭터의 향연
'빨래'는 무엇보다 생생히 살아 있는 인물들이 흥미롭다.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이는 서울 생활 5년차 강원도 아가씨 나영이와 꿈을 찾아 한국에 온 몽골 청년 솔롱고다.

여기에 동대문에서 속옷 장사하는 희정엄마, 솔롱고의 친구인 필리핀 출신 노동자 마이클, 자신의 자수성가 스토리를 매일 매일 들려주는 야비한 서점 사장, 사장 눈치 보는 직장인, 외상값 손님에 속썩는 슈퍼 아저씨, 만원 마을버스를 모는 운전기사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한다.

'난 돈도 많이 벌고 사랑도 많이 할거다' 노래하는 희정엄마, '산 것들은 다 지 냈세 풍기고 사는 거'라는 주인공 할머니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 삶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가사
제11회 한국뮤지컬 대상 작사상, 제4회 더뮤지컬어워드 작사상·극본상을 수상한 작품답게 배우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는 깊은 울림을 준다.

'난 빨래를 하면서 얼룩같은 어제를 지우고/ 먼지같은 오늘을 털어내고/ 주름진 내일을 다려요/ 잘 다려진 내일을 걸치고 오늘도 살아요' 주인공 나영이 부르는 '빨래'는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다.

해고 위기에 놓인 나영을 위해 희정엄마와 주인공매가 함께 부르는 노래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시간이 흘러 흘러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슬픈 눈물도 마를 거야'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오늘같은 날엔/ 꼭 잠긴 내 방 앞에/ 우리 엄마 물김치 삶아서 보낸 우체국 택배/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고 노래하는 '한 걸음, 한걸음'엔 울컥한 마음이 든다.

■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나오
'빨래' 출연배우는 모두 8명이다. 이중 주인공 솔롱고와 나영을 제외한 6명의 배우는 다양한 역할로 변신하며 재미를 선사한다.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주인공 할매가 순식간에 젊은 처자로 변하고, 한국말 서투른 마이클은 힙합 청년으로 모습을 바꾼다.

사랑에 올인하는 희정 엄마는 마을 버스 운전사가 되고, 그녀의 사랑 꾸시는 서점 사장으로, 슈퍼 주인으로 또 변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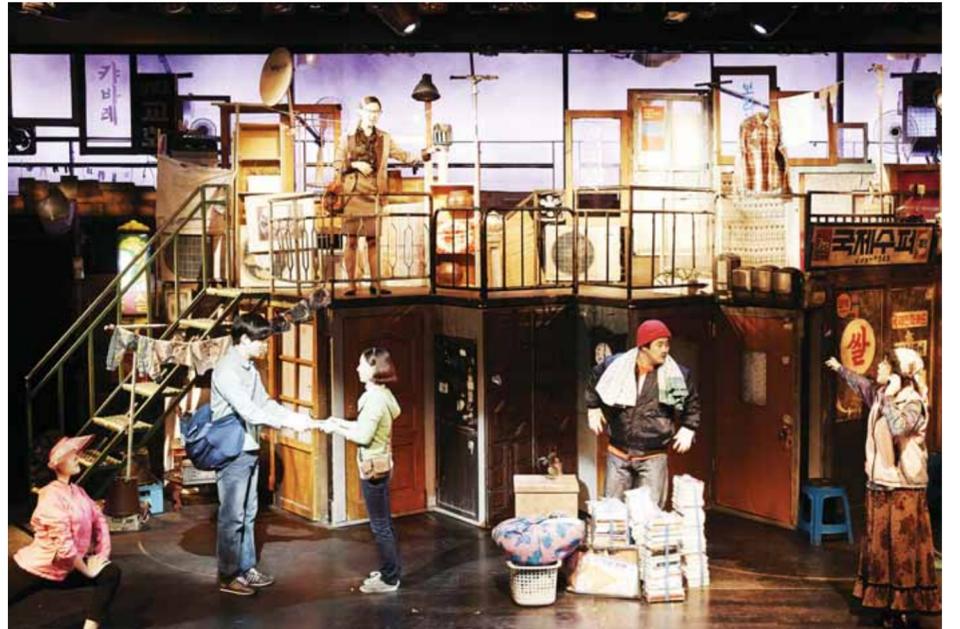
순식간에 캐릭터를 바꾸며 연기하고 노래하는 배우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 인간에 대한 애정·예의 담긴 스토리
'빨래'는 서점에서 일하는 나영과 몽골 이주 노동자 솔롱고 등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진솔하게 그려낸다.

이주 노동자 문제, 해고 문제, 장애인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과감히 건드리며 '인간다운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무거운 소재들을 풀어내면서도 진지함과 함께 유머러스한 극 구성과 캐릭터, 노래들을 등장시켜 관객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몰입도를 높인다.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도 동료애를 잃지 않고, 힘겨운 달동네 생활에도 서로를 보듬는 이들의 이야기가 따뜻하다.

티켓 가격 5만원, 3만원. 문의 062-220-0541./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뮤지컬 '빨래'는

서점에 다니는 스텝일곱 당찬 강원도 아가씨 나영이 달동네로 이사를 온다. 빨래를 널러 올라간 옥상에서 이웃집 몽골 청년 솔롱고를 만나 첫 인사를 나누고,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던 두 사람은 바람에 날려간 빨래를 계기로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을 열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나영의 동료가 서점 사장에게 부당해고를 당하고, 이를 잡지 못한 나영은 사장과 맞서 싸우다 결국 자신도 해고 위기에 처한다. 나영이가 살고 있는 집의 억척스러운 주인 욕쟁이 주인 할매, 동대문에서 속옷 장사하는 희정엄마 등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만난다.

'강통프로젝트' - 빈 공간에 문화를 채우다

'놀이터아름' 11월 11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일대 '일상+공간'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20~40대 청년작가 17인이 모여 시작한 소촌산단에서 재미를 불러일으킨다. '놀이터아름'(ART+아름)이 주관하는 강통프로젝트 '일상+공간'전이 11월11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일대에서 열린다.

강통프로젝트는 '빈 공간에 문화를 채우다'라는 의미로, 사람과 사람이 알음알음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기획했다. 광주문화재단 공모 사업인 2016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의 하나다.

이 프로젝트는 미디어퍼포먼스, 평면회화, 입체, 영상·설치 등 다양한 장르 작품 30여점을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과 야외공간에 설치한다.

작가들은 공간과 사람 관계를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김성결 작가가 그린 '치유의 숲'은 여러 색을 혼합해 거무직직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밝은 색이 눈에 띈다. 노란색 하늘 아래 사이좋게 서있는



김성결 작 '치유의 숲'

나무형상들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이인성 작가가 출품한 '숲'도 사람 관계를 이야기한다. 광장에서 굴렁쇠를 굴리고,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또 전시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놀토- 토요미술학교' 체험행사를 진

행한다. 작가와 함께 '정크아트-강통화분 방향제 만들기', '계란판을 활용한 에벌레 만들기' 등이 운영돼 즐길거리를 더한다.

한편, 소촌아트팩토리는 2015년 12월말에 광산구 소촌동 소촌산업공단 내 옛 광산구민방위교육장을 리모델링해 개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백자애(白瓷愛)

연(蓮)을 던지다'

도예가 김성곤 개인전



'연꽃을 담다'

내달 9일까지 담양 '보임셴'... 11월까지 입주작가 전시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셴은 지난 4월부터 레지던스를 운영하며 공예 분야 신진작가 3명을 선정, 창작 지원에 나서고 있다. 보임셴이 11월까지 레지던지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을 진행하며 결과물을 발표한다. 첫번째 주자는 김성곤 도예가가 나서 10월9일까지 '백자애(白瓷愛) 연(蓮)을 던지다'전을 연다.

생애 첫 개인전을 가지는 김 작가는 백자를 주로 작업했다. 담백하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 소박한 삶을 살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작품에 담았다.

특히 다양한 연꽃 무늬를 백자에 더하며 미적 감각을 보여준다. 작품 '기다리며'는 찻잔 안쪽에 꽃봉우리를 그렸다. 정갈한 형태에 그려진 꽃봉우리는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연꽃을 담다'에서는 만개한 연꽃을 볼

수 있다. 차추전자에는 결표면에 그리고, 찻잔에는 바닥에 등장시켰다. 화려한 색채를 사용하지 않아 백자 본연의미를 해치지 않는 점을 느낄 수 있다.

매주 일요일, 월요일은 휴관이다. 문의 061-383-647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연선 1층)

아프리카 순례조각
양근로전시회
- 400여점 전시 -
장소: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상설전시관

국민·대·통·합을 위한

영호남 문화대축전

2016 YEONGHONAM CULTURAL FESTIVAL

광주천변 특설 행사장(광주공원 앞) 9/30(금) ~ 10/2(일) 3일간

충장축제 기간중

문화를 통한 교류의 장

어울림을 주제로 한 체험·참여 프로그램

영·호남 특산물 전시 판매

부스 참여업체 모집

영·호남 지역자치단체의 홍보 및 특산물 판매를 위한 부스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선착순 모집 배치)

문의 (062)220-0555, 010-7174-1257

